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및 직원 오찬 간담회

가지고 있는 역량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정원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밝은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국가 기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선발과 훈련 과정을 보면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 인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시련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되고 보니 기대와 불안이 여러분들 사이에 엇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불안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각오가 자리 잡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맨 처음 국정원을 쳐다보면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저 같은 사람 잡아다 혼도 냈던 곳이고 과거정부에서는 정권에 봉사하다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 조직 어떻게 할지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지금 와보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이것을 4대 권력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 기관장들은 꼭 따져보도록 했습니다. 그 기관들이 과거에 권력을 위해 본이든 아니든 이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국정원으로선 갈등과 시련을

보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엉뚱하게 정권의 몇몇 사례로 신뢰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개혁은 밖에서 타율적으로 요구하면 일회성에 그치고 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개혁을 주도해야지 1차 개혁에 이어 2차 3차 개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개혁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어려운 일이자,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 하시리라 확실히 믿고 여러분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는 그만하십시오. 정권이 국정원에 대해 지금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안해 할 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달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개혁의 두 번째 목표는 국정원이 국가 안전을 위한 전문적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사찰 같은 것은 당연히 폐기됩니다. 갈등조정과 국정 일반을 위한 정보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할 일은 아닙니다. 국가 안전 정보에 전념해 주십시오. 그러나 과도기적으로 해주십시오. 그 역량이 폐기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갑자기 다 바꾸다보면 사람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었는지도 생각해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취지를 잘 살려 말 그대로 정보 전문가, 프로페셔널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 지역에 내려가 보니 국정원 간부들이 대접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 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직에 가장 부담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자세로 일을 해주십시오. 과거처럼 이른바 ‘꿇발’이 아니라 자부심과 보람으로 여러분이 제 위치를 찾아주십시오. 내 임기 안에 자랑스러운 국정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밀어드리겠습니다.